



지난달 31일 오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던 박지성이 물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발에 얼음주머니를 한 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너마저...

훈련 중 왼쪽 발목 접질러  
심각한 상태는 아닌 듯  
개막 앞두고 '부상 경보'

‘신형엔진’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스코틀랜드 전지훈련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지만 최근 미드필더들의 ‘줄부상’을 겪고 있는 아드보카트호에 또 다른 근심거리를 안겨주게 됐다. 박지성은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에서 진행된 사흘째 현지 훈련에서 5대5 미니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편으로 나선 이영표(토트넘)와 부딪힌 뒤 왼쪽 발목을 잡고 그라운드에 누웠다. 박지성은 왼쪽 다리를 절면서 그라운드를 빠져 나온 뒤 축구를 벗고 얼음 찜질을 하면서 상태를 지켜봤지만, 결국 훈련을 중단하고 버스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그라운드에서 박지성의 상태를 지켜본 김현철 대표팀 주치의는 “현재 상태로는 왼쪽 발목 염좌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드보카트호의 주전 미드필더진을 구성하는 김남일(수원)이 지난달 29일 훈련 도

중 고질적인 부상 부위인 오른쪽 발목을 접질려 재활에 돌입한 가운데 공격의 핵을 이루는 박지성까지 다치면서 독일월드컵 본선 개막을 눈앞에 둔 대표팀에 ‘부상 경보’가 내려졌다. 박지성은 이날 훈련을 마친 뒤 숙소에서 의무팀의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다행히 왼쪽 발목 안쪽을 경미하게 찔렀다는 소견을 받은 뒤 부상 부위가 부어오를 것에 대비해 왼쪽 발목을 얼음 팩으로 감싸놓은 상태. 이원재 대표팀 미디어 담당관은 “자고 나서 내일 아침 상태를 봐야겠지만 평가전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정상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지성은 숙소로 돌아간 뒤 “그다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걷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이 담당관은 전했다. 이 담당관은 “노르웨이전 출전 여부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지성은 지난 2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버러전에서 오른 발목을 다쳐 열흘 이상 재활을 거쳤고 지난달 14일 아드보카트호에 소집된 이후에도 재활을 계속하다 지난달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에 처음 실전에 투입됐었다.

## 박주영-안정환-설기현 ‘新 스리톱’ 시험

■ 내일 노르웨이와 평가전

박지성 등 부상병동 중원  
김두현·백지훈·김상식 등  
수비형 미드필더로 교체

‘태극전사여! 유럽 원정 징크스에서 깨어나라!’

월드컵 4강 신화 재현을 꿈꾸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전지훈련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유럽 현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북유럽의 강호 노르웨이를 상대로 닉 아드보카트 감독 부임 이후 첫 유럽 원정 평가전에 도전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0위 노르웨이 축구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른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뒤 비공식 경기로 치러진 미국전을 제외하고 총 15번의 평가전을 치러 9승3무3패(홈 4승2무, 원정 5승1무3패)의 비교적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아드보카트호의 이번 노르웨이 평가전은 독일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유럽 원정’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노르웨이전을 통해 대표팀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최근 공을 들고 있는 2가지 조합의 스리톱 공격 라인을 비교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맞게 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노르웨이전에 박주영-안정환-박지성으로 이뤄진 ‘신(新)스리톱’ 조합을 시험해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지성이 31일 훈련 중 왼쪽 발목을 접질리면서 아드보카트 감독의 ‘베스트 11’ 구상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박지성의 출전 여부에 대해 아드보카트 감독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무리를 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벤치에 앉힐 가능성이 높아 최근 오른쪽 윙 포워드로 위치를 바꾼 설기현이 대신 가세해 박주영-안정환-설기현 스리톱 라인의 출격 가능성이 크다.

유난히 부상 선수가 많은 중원 조합은 아드보카트 감독의 고민거리다. 아드보카트



지난달 3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서 아드보카트 감독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감독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김두현(성남)을 꼭짓점으로 백지훈(서울)과 김상식(성남)이 나서는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 체제다.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준비 하라”

아드보 감독, 박주영에 특명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닉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구상하는 ‘신(新) 스리톱’의 왼쪽 윙 포워드로 낙점된 박주영(21·FC서울)에게 오는 2일 노르웨이와의 대표팀 평가전을 앞두고 슈팅 횟수를 늘리라는 특명을 내렸다.

박주영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에서 계속된 사흘째 대표팀 소집훈련을 마친 뒤 “아드보카트 감독이 슈팅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이날 5대5 미니게임에서 원톱 안정환, 오른쪽 윙포워드 박지성과 함께 왼쪽 윙포워드로 ‘삼각관대’를 이뤄 골감각을

높였다. 박주영-안정환-박지성 조는 닉 아드보카트 감독이 애초 꾸려온 설기현(울버햄프턴)-안정환-이천수(울산) 트리오와 더불어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공격조합이다.

특히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미 이천수를 노르웨이전에 결장시키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박주영은 왼쪽 윙포워드로 선발출전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 이날 실시된 미니 게임은 사실상 노르웨이전 스리톱의 가상 훈련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지성의 부상으로 박주영은 최근 오른쪽 윙 포워드로 자리를 옮긴 설기현 및 안정환과 함께 스리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주영은 “경기에 나서는 목표는 골을 넣는 것”이라며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 대표팀 왜 부상 잦나?

## 주전 경쟁 심리적 압박 미끄러운 잔디도 영향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006 독일월드컵을 향해 가슴 벅찬 열정을 안고 맹훈련 중인 아드보카트호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글래스고 현지에서 한 번이라도 ‘재활팀’에 속해 본진의 훈련에서 ‘열외’된 경험에 있는 태극전사는 모두 8명이다.

김남일, 이을용, 설기현, 박지성 외에도 백지훈, 이호, 김영철, 송종국이 지난달 28일과 29일 훈련에 한 번씩 빠졌다.

지난달 14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한 전후로 가벼운 부상이 있었던 조재진(시미즈), 정경호(광주), 이천수(울산), 최진철(전북)까지 포함하면 최종 엔트리 2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한 번씩 의무팀의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서 자주 부상자가 나오는 것일까.

아드보카트호 코칭스태프는 본선 첫 경기 가 다가오면서 선수들의 의욕이 점점 올라가고 주전 경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격한 움직임이 잦아지고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다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른 직후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곧바로 훈련에 돌입한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구장에서 이을용이 실전 연습을 하는 선수들과 달리 가볍게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낮선 환경과 상대적으로 미끄러운 그라운드 잔디 여건도 부상을 부르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수비수 김상식(성남)과 김진규(이와타)는 “스코틀랜드 잔디가 국내 잔디보다 축구화 스테드에 잘 파이는 경향이 있고 지반이 물기가 많아 미끄럽기 때문에 부상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남일 회복세 빨라... ‘불행 중 다행’

불행 중 다행이다.

‘신형엔진’ 박지성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가벼운 왼쪽 발목 염좌로 부상자 대열에 가세해 근심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발목을 다친 ‘진공청소기’ 김남일의 회복세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김남일은 전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 파크에서 진행된 한국축구 대표팀의 자체 연습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면서 ‘큰 부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지만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당초 예상을 깨고 그라운드에서 러닝을 통해 본격적인 재활훈련을 시작했다.

하루 전까지도 김남일은 사흘간 숙소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이후 나흘 가량 그라운드에서 재활훈련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상으로 깨고 훈련장에 ‘깜짝 등장’한 그는 최주영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동화를 신고 러닝을 실시해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김남일은 재활훈련 도중에 처음에 신었던 운동화를 벗고 축구화로 갈아신으면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줬다.

이원재 미디어담당관은 “선수 본인이 숙소에서 치료만 하는 것보다 그라운드에 나와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수의 상태에 맞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무팀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몸상태는 60~7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덧붙였다.